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례 19:18)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마태복음 강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님 (마 8:14-17)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보시니 그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여인의 손을 만지셨는데 열병이 그 즉시로 떠나갔습니다(14-15절). 이 소문이 퍼지자 사방에서 귀신들린 자, 병든 자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17절).

이 말씀은 이사야 53:4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출 15:26).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질병과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태어나서부터 영아기, 유아기를 지나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를 지내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질병과 정신적 상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네 인생은 결국 상처투성으로 끝나는 비극이기에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마 10:28).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힘들지, 무겁지, 혼자 고생하지 말고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과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세 가지의 통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만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둘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히 4:12).

셋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인하여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질병과 상처 가운데 살아야 했던 우리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 천하에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Jesus who takes up our infirmities (Matt. 8:14-17)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When Jesus came into Peter’s house, he saw his mother-in-law suffering very much from a fever. Immediately Jesus touched her hand, and the fever left her (v.14-15). As soon as this rumor spread, the demon-possessed men, and the sick from every direction rushed into Jesus. And Jesus said, “Go!” So the demon came out of them and He healed all of the sick.

The healing work of Jesus spoken through the prophet Isaiah long time ago is the fulfillment of God’s word.

“This was to fulfill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 Isaiah: ‘He took up our infirmities and carried our diseases’” (v. 17).

This scripture was quoted by Matthew from the prophet Isaiah (53:4). The purpose of which Jesus came to this earth is that He personally took up our infirmities and carried our diseases.

It is God who heals us (Ex. 15:26). There are a lot of diseases, sufferings, and scars, in the world we live in. Since we were born, through infancy, childhood, adolescence, and the prime of life, we have been exposed to a lot of diseases, and psychological wounds. If so, will our life end with a tragedy full of wounds in the long run? No, it will never happen.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Matt. 11:28).

All people in the world are “those who are weary and burdened.” Jesus calls those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says, “It’s hard, and heavy. You don’t have to undergo all sorts of hardships alone. Just come to me. I will let you rest your mind. I can provide you with healing, recovery, desire, and j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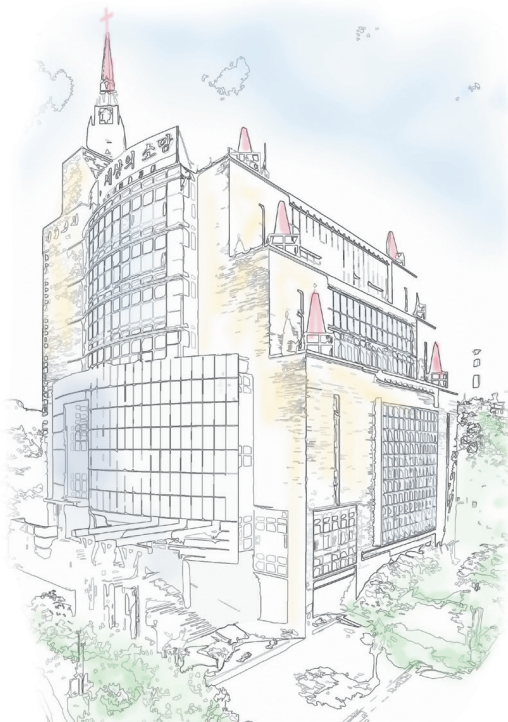
In the text, there are three passages through which God’s grace works.

First, they experience healing by Jesus full of love and righteousness. Jesus engages not only in his power but also with love and righteousness. Second,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they will experience healing (Heb. 4:12). Third, they will experience the healing by a complete relationship with God.

My beloved Christians,

We who have to live spiritually and physically in a lot of disease and destruction have been healed by Jesus wonderful grace, and now we stand before him as a worship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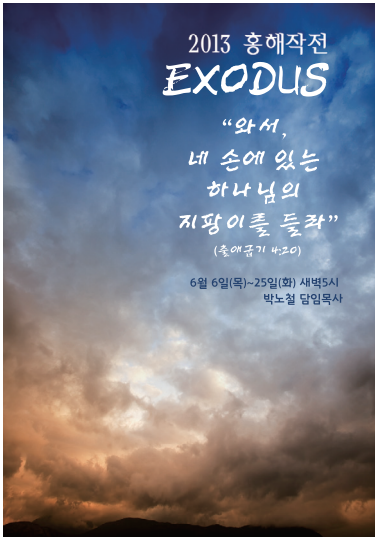
By further relying on Jesus Christ who took up our infirmities, I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be God’s precious workers spreading His wonderful grace all over the world.



홍해작전, 승리의 행군 계속 되다

“와서,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라”

민족교회와 서울교회의 비전, 국가와 개인과 가정의 기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응답 받는 2013년 홍해작전이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간 박철현 목사의 출애굽기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홍해작전은 어제부터 우리교회 박노철 담임목사가 계속하여 인도한다.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이때 세상의 어떠한 제도나 사상이 아닌 성도들의 기도만이 이 민족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다. 6.25 전쟁이 발발한 25일까지 계속되는 홍해작전에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성도들의 발길이 계속되기를 기도한다.



홍해작전 7행시 공모

홍해작전 7행시를 공모하고 있다. 홍해작전 7행시는 “하/나/님/의/지/팡/이”로 시작되는 시를 적어내면 되고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교구, 연락처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기 바란다.
(영어예배부 6행시 E.X.O.D.U.S)

홍해작전 7행시는 교회 2층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함에 넣으면 된다. 또는 서울교회 공식 페이스북인 '익투스(<http://fb.com/seoullichthus>)' 접속하여 작품을 등록하거나 본인의 페이스북에 작품을 올리고 익투스에 게시물 공유를 요청하여도 된다.

홍해작전 백일장 및 그리기 대회

우리교회 교회학교는 오늘 각 교회학교 교육실과 한티공원 등에서 홍해작전 백일장 및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각 행사의 시상식은 6월 30일 홍해작전 승전감사

예배 시간에 하며 대상과 입선으로 나눠 대상은 유치,유년,초등부 1명, 중고등부 1명, 청장년부 1명 등 각 3명, 입선은 교육국별로 6명씩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6월 22일 (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기도의 날"로

6월 22일(토)는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기도의 날로 영아부부터 청년1,2,3,부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히 이번 2013홍해작전은 많은 다음세대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매일 새벽 푸짐한 나눔의 잔치가 펼쳐지고 있다.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에 참

석하는 교육1국(영아~초등부) 학생들에게는 매일 어린이 출석상(학용품)을 준다. 예배 후 2층 데스크에서 출석 스티커와 같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근상도 준비되어 있다.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부는 7번, 청년1,2,3부는 14번 이상 출석하면 받을 수 있다.

사무국 경리사무직, 총무사무 직원 모 집

-마감 6월19일(수)까지-

우리교회 사무국에서 경리사무 업무를 담당할 성도와 총무 업무를 담당할 성도를 찾고 있다. 회계 경리업무 경험이 있으신 분, 총무 업무 경험이 있으신 분(무경험 성도도 가능)으로 우리교회 등록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사무국으로 수요일(6월19일)까지 제출하기 바란다.

6월 성경 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

- 2등: 12교구 소윤경 집사
- 1등: 6교구 김희진 권사 하정자 권사 함은희 권사 이영희 권사
- 4교구 백혜숙 권사
- 9교구 이남성 집사
- 11교구 국산옥 권사
- 12교구 박두호 장로 배현승(초등부) 배현주(초등부)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92)

(문 91)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하1장에 나타난 또 다른 기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답) 삼상31:3-4에 의하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추격을 받아 사울의 아들이 죽었고 사울은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자 활레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는 모욕을 당할 수 없다 하여 무기를 든 자기 신하에게 자기를 찌르라 했으나 그가 행하지 못하므로 스스로 자기 칼에 엮드려져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하1장에서는 사울의 몸종이었던 아멜렉 사람이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사울의 요청이 있어 그가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의 곁에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의 고리를 벗겨 다윗에게 가져왔다 했습니다.

이 기사는 분명히 삼상31장의 내용과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이 죽는 시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삼상 31:3-5(대상 10:1-6)과 삼하1장의 기사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에는 사울이 활레 없는 자에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병기든 소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했으나 그가 왕을 두려워 죽이지 못하자 왕은 자기 칼 위에 엮드려져 자살했고, 병기든 소년도 자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하1장에서는 아멜렉 소년이 사울을 죽였다고 한 것입니다.

활레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손을 피하려했던 사울이 아멜렉 소년의 손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삼하1장의 기록은 아멜렉인의 허위진술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된 다윗에게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하므로 상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시체에서 취하여 다윗에게 바쳤으나 그는 다윗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아멜렉을 치고 돌아와 이틀을 쉬고 셋째날에 이 아멜렉인이 다윗을 찾아와 거짓말로 자기 공적을 나타내려 하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그 아멜렉인은 사울의 지시로 놈의 제사장 85인을 죽인 도역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조상이 지은 죄값을 또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삼하 1:16).

(다음 주 계속)



서울강남노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에서 설교하는 박노철 목사

2013 흥해작전

흥해는 이미 갈라졌다!

우리교회 흥해작전은 교회 창립 이듬해인 1992년에 시작되어 명실상부한 기도와 말씀 작전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호국의 달인 6월에, 그 가운데서도 6월 6일 현충일을 기점으로 시작하여 한국전쟁 발발일인 6월 25일까지 특새 기간을 정한 것은 우리가 개인과 가정의 기도를 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애국애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함이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능력을 얻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면 흥해작전이야말로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진 우리 신앙이 다시금 부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서울교회가 이처럼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흥해작전이 크게 한 몫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odus 2013,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건너는 2013년 흥해작전이 전반기를 훌쩍 넘어 이제 후반기를 달려가고 있다.

지난 전반기 동안 말씀을 담담하신 총신대 박철현 목사님은 출애굽기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조명하며 모세라는 한 인간을 통하여 씬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므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또 모세가 진정한 리더가 되기까지 리더의 본질인 능력

이라는 칼을 주시고 그 칼을 통제하는 칼집을 준비시키시며,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은 특별히 다음세대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박철현 목사님에 이어 후반기에도 박노철 목사님의 출애굽기 말씀 선포가 계속될 것이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천국잔치인 흥해작전을 자신과 가정의 영적 부흥의 기회로 만들어보자.

Exodus 2013년, 흥해는 이미 갈라졌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마른땅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잘 참석한 이들은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의 개가를, 아직 참여하지 못한 이들은 내일 새벽부터라도 애굽을 탈출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도록 하자. 젓먹이 아이로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새벽마다 온 성도가 합심하여 부르짖은 7 가지의 기도제목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올린 수많은 기도가 응답 되고, 낙심한 자와 병든 자가 회복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이 새벽을 통해 수없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전반기 동안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박철현 목사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

글: 허숙권사(편집부), 사진: 이준태2 성도



엄마 아빠 따라 나온 어린 아기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흥해작전



2013년 6월 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서귀용 집사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고 찬송 부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집사님이십니다.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시니 믿기지 않습니다.

故 서귀용 집사

주일마다 항상 소망부에 일찍 오시어 출석부에 체크하시고 성경 읽으신 것을 손수 기록하시곤 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과묵하신 집사님은 은혜 안에 사셨습니다.

성경퀴즈대회에서는 열심히 공부하여 오셔서, 일어나 손을 번쩍 드시는 노익장이셨습니다. 반별 찬양대회 시에는 음정, 박자가 안 맞아 다시 부르시는 실소도 보이셨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걱정, 근심,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보이니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늘 부르던 찬송처럼 편안하게 천국 문에 이르셨습니다.

소망부 빈 자리에는 집사님의 잔영만 보입니다. 집사님과 친교 시간에 대화를 하면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만 하셨습니다. 아들, 며느리 공경 받고, 보살펴 주고, 용채도 부족함이 없이 준다고 하시면서 아침 조반도 며느리가 잘 차려주어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맛있게 먹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을 여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잘못하여 많이 고생하였다"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갔어야 하는데" 하시며 온갖 마음의 고뇌를 한마디 하신 집사님. "천국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하면 "만나야지" 하셨습니다. 자손들 앞에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데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셨는지요.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축복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 1~9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난게 하고 칭송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서귀용 집사님도 소망부에서 배운 말씀과 같이 항상 자녀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서집사님은 소망부 성경공부를 마치시고 긴 복도를 힘없이 성경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끝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지막 날 집사님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박인규 장로 (소망부 교사)

2013 흥해작전

다락방과 함께 건너는 흥해



장동철집사 (16교구)

우리 다락방은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직장인들로 구성된 부부다락방입니다. 저는 2008년부터 6년째 다락방에 참석하고 있는데 부다락방장으로 섬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다락방과 함께 하심을 보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다락방은 우물과기 운동, 교회 청소, 노방전도 등의 많은

근래에 다락방에 참석하시게 된 장현철 집사님 부부도 예은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고, 격려의 글을 다락방원들에게 보내 감동을 주시는 장호현 집사님, 묵묵히 식당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박원



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힘을 받아 저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워주시기를 기도했더니 정말로 아침에 눈이 떠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기쁨과 감

사들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호 집사님이 일하시는 직장에 장애인을 돌보는 자원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여서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다락방이 되려고 합니다. 신실하신 이상호 집사님과 강석조 집사님의 영적인 리더십은 저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일집사님도 우리 다락방의 기쁨입니다. 또한 함께 기도했더니 다락방식구 중에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피곤하여 흥해작전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매일 깨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다는 이상호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

니다. 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다락방원들은 모두 흥해를 같이 건너고 있습니다. 조금은 개인적인 내용이 될 수 있어도 기쁨과 고민을 같이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다락방의 모습은 계속될 것입니다.

선교보고 - 카자흐스탄

카작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이은준 선교사 (카자흐스탄)

다음은 제 13기 카자흐스탄 비전트립(2013. 8. 2-9)을 가게 될 미르교회 이은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보내온 편지이다. <편집자 주>

■ 결핵요양원 아이들 이야기

우리는 타라즈 국립결핵요양원에 있는 학생들을 4년 전부터 만나 비밀리에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결핵요양원 직원들이 알면 절대로 외부에 보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앓고 있는 결핵이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같이 식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해 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핵이 우리 부부와 우리 청년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습니다. 로자라는 학생은 결핵요양원에서 우리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치료되어 요양원에서 나와 전문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 교회 재등록 통과

1년 동안 애를 태우며 기도하고 준비하였던 교회 재등록이 드디어 통과되어 교회 등록증을 지난 주에 받았습니다. 참 많은 시간들을 고민하고 밤낮으로 그리고 45도를 오르내리는 여름 무더위에도 관공서를

뛰어다니며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성도들의 명단을 들고 일일이 사인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때로는 밤에 야간 경비로 일하는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기도 하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양과 농사를 짓는 들판에 가서 사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열 번도 더 서류를 정정하여 다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 재등록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백성(카작)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무슬림의 강한 어둠의 사슬에 매여 고통당하는 카작인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인내와 용기로 이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9일(수) 6.25상기 송탄지역 장로연합회주최 목회자세미나와 연합성회를 인도한다. 20일(목) 경기노회 목사, 장로수련회에서 특강(2번)을 한다.
- 이갑진 장로(12교구) 6.19~24 세계기독교인회 동아시아 기독교인 대회(오산리 영성 수련원)
- 문단등단(수필부문) : 함은희 권사(6교구) 7월6일 오후3시 대항로 흥사단3층
- 득남 : 12교구 김관섭 성도 하혜심 성도 (하인선 장로, 남태순 권사 차녀)
- 주간식당봉사 : 모세선교회(6.16) 이삭선교회(6.23)
- 금주의 식사 : 이하경 성도 최종금 집사 김인수 집사 이영희 전도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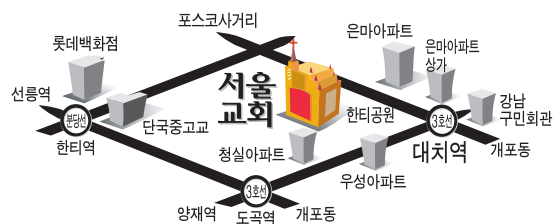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계속되는 흥해작전을 통해 더욱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 많은 성도들이 참석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얻도록
2. 다락방 모임을 통해 사랑의 교제와 말씀의 나눔이 풍성히 이루어져 삶의 치유와 변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3.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본 당
	III 부 예 배	오후 2시	II, III, IV 층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II, III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